

< 긴급 공지 >

본 소견서는

신안문화원 회원들께 우편 발송하여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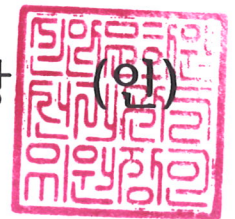
임시총회 이전에 도착하기 어려워 부득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7일

신안문화원선거관리위원장

(인)



일장 후보 소견서

자랑스러운 신안문화원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압해도 출신으로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강성곤입니다.

저는 신안문화원과 2002년경부터 후원을 통해 인연을 맺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안문화원은 198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애향과 봉사의 정신으로 섬 지역의 특수한 전통문화를 발굴, 전승하고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오고 있는 매우 자랑스러운 조직체입니다.

특히 신안군의 유배문화와 연계된 선양사업과 1섬 1박물관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양문화의 자부심으로 긍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안문화원의 지난 40여 년 선배님들의 피땀은 현재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로 해양문화의 만개를 준비하고 있는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문화가 밥이다, 문화가 뿌리이다, 문화가 곧 정신이자 정체성이다,

많은 분이 시대에 따라 문화의 개념을 조금씩 달리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란 나이고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양식이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문화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섬·바다로 구성된 우리 신안의 문화는 늘 우리 곁에 함께 해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고 수줍어하고 숨기고 싶은 변두리 언저리 문화로 폄훼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수 년 전부터 우리의 섬과 바다에도 희망이 솟는 자부심이 쌓여가는 자랑스러운 문화융성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안군에서도 행정의 기본 틀이 희망이 샘솟는 섬에서 가고 싶은 섬, 이제는 살고 싶은 섬으로의 선언을 통해 실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섬, 살고 싶은 곳에는 반드시 자부심과 소득이라는 두 개의 축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 한 축의 자부심은 문화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신안문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는 어느 특정 지역 고유의 산물이지만 특정 계층에서 머무르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이 있고 계승이 있고 창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만약 원장직이 주어진다면 많이 부족하지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

1. 전임 회장님의 훌륭한 사업들을 성실히 받들어 전통을 이어 가겠습니다.
2. 전국으로 외연을 확장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기성세대와 현재세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원으로서의 바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 문화라는 특수성을 지키기 위해 예산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뛰겠습니다.
5.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신안 해양 문화의 우수성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6. 신안문화원 회원 상호 간의 존중과 협력을 이어 가겠습니다.

대박을 꿈꾸는 젊은이여 바다로 오라.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 신안군은 대한민국의 해양 경제 중심지입니다.

신안문화원 회원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안문화원 원장 후보 강성곤 배상